NC, 8-4로 키움 잡고 2연패 탈출

신민혁 9승…위기의 NC 구한 '난세영웅'

키움전 7이닝 2실점 5K 승리 주역
10월 3경기서 2승무패 ERA 1.35
앞뒤로 쫓기던 NC, 5강 경쟁 동력

NC 다이노스 우완투수 신민혁(22)은 14일 고척 키움전에 선발등판해 7이닝 4안타 5삼진 2실점의 호투로 팀의 8-4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9승(6패)째로 드류 루친스키(14승)에 이어 팀 내 다승 2위다.

NC는 12, 13일 5위 경쟁 상대 키움과 맞대결에서 잇달아 패했다. 5위 키움과 격차는 2경기. 키움은 물론 SSG 랜더스와 간격까지 벌어지는데, 8위 롯데 자이언츠와 격차는 좁혀지니 위아래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 같은 위기에서 신민혁이 소방수로 나섰다. 10월의 역투를 이어가며 그야말로 '에이스' 부럽지 않은 투구를 다시 보여줬다.

출발은 아쉬웠다. 1회말 키움 리드오프 이용규에게 솔로포를 맞았다. 그러나 이 한방이 오히려 예방주사 같은 효과를 냈다. 이후 흔들림 없이 제 공을 던지며 아웃카운트를 차근차근 늘렸다. 김혜성, 이정후, 박병호를 공 9개로 잡고 1회말을 마무리했다.

2회말은 삼자범퇴. 3회말 번트안타와 볼넷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주무기 체인지업을 앞세워 역시 무실점. 4회말과 5회말은 연속 삼자범퇴 이닝으로 수놓았다. 마지막 이닝이었던 7회말 1점을 더 내줬으나, 무난하게 퀄리티스타트 플러스(QS+·선발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작성했다. 10월 3경기(20이닝)에서 2승무패, 평균자책점(ERA) 1.35의 눈부신 역투다.

신민혁의 호투 덕분에 NC도 고척 원정 3연전 싹쓸이 패배 위기에서 벗어났다. 1회초 선취점을 올린 뒤 6회초 김기환의 2점포 등을 앞세워 4점을 달아났다. 8회말 5-4, 1점차 추격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9회초 3점을 보태 키움의 추격권에서 멀찌감치 벗어났다.

고척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 NC 신민혁이 14일 고척 키움전에 선발등판해 힘차게 볼을 던지고 있다. 7이닝 4안타 2실점으로 호투한 신민혁은 팀 승리의 발판을 놓으며 시즌 9승째를 챙겼다. 고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유독 임찬규에겐 힘겨운 2승

후반기 ERA 2.59·5차례 QS에도 승리없이 4패
기운 빠질법하지만 LG 마운드 리더로 묵묵히 제몫

공 1개만을 던지고 행운의 승리를 챙기는 투수도 있지만, 유독 승운이 따르지 않아 호투에도 불구하고 승패 없이 물러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올 시즌 LG 트윈스 우완 선발투수 임찬규(29)는 후자의 대표적 사례다.

LG 임찬규

임찬규의 시즌 성적은 14경기에서 1승7패, 평균자책점(ERA) 3.76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시즌 출발은 늦었지만 후반기에는 꾸준히 선발로테이션을 지키고 있다. 투구 내용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후반기 10경기에서 승리 없이 4패만을 떠안았다. 후반기 ERA는 2.59에 불과하다. 5차례의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작성했고, 이 가운데 2차례는 무실점 피칭이었을 정도로 호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승운은 임찬규를 비켜가고 있다. 승패를 기록하지 않은 6경기 중 13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처럼 승리요건을 갖추고 마운드에서 내려간 뒤 불펜투수들의 실점으로 승리를 놓친 경기가 한 차례(9월 1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 더 있었다.

13일 롯데전에선 5이닝 동안 7안타를 허용했으나 2실점으로 막아낸 뒤 4-2로 앞선 가운데 공을 넘겼다. 시즌 2승째를 기대해볼 만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앞선 2차례 등판에선 1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 5.2이닝 2실점, 6일 잠실 SSG 랜더스전 6.2이닝 3실점으로 선방하고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의 멍에를 썼다.

기운이 빠질 법한 상황. 하지만 임찬규는 마운드에선 씩씩하게 공을 던지고 있다. 어느덧 중고참이 된 그는 덕아웃에서도 쉬지 않는다. 선발등판하지 않는 날에는 덕아웃 분위기 메이커를 맡아 동료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으며 갈 길 바쁜 LG의 마운드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쫓기는 KT 이강철 감독 "베테랑들이 막힌 혈 뚫어줘야"

LG·삼성 추격에 선두 수성 비상등
위기마다 힘낸 베테랑 리더십 기대
유한준, 14일 두산전 3안타 응답

베테랑들의 활약이 다시 한번 더 필요하다.

창단 첫 정규시즌 우승을 노리는 KT 위즈가 장기 레이스 완주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의 맹렬한 추격으로 선두 수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KT는 12, 13일 잠실 원정에서 두산 베어스에 잇달아 덜미를 잡혔다. 최근 등판에서 안정적 컨디션을 자랑했던 윌리엄 쿠에바스와 배제성이라는 막강 선발 카드를 내고도 연패를 당했다. 이 두 경기에서 KT가 뽑은 점수는 고작 4점. 12일에는 1득점, 13일에는 3득점에 머물렀다. 다행히 14일에는 장단 13안타로 두산을 6-2로 제압하고 한숨을 돌렸다.

쫓기는 입장은 항상 괴롭다. 초조함 속에 구성원 모두가 조급해질 수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타격이 하향세로 접어들면 초조함과 압박감은 배가될 우려가 크다.

이강철 KT 감독은 "하던 대로 해야 한다. 나 자신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분위기 반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3일 경기를 앞두고는 이를 위한 해결책을 꼽기도 했다. 기대감을 표시한 대상은 베테랑들이었다. 이 감독은 "누군가가 나서서 막힌 혈을 뚫어줘야 한다. 결국 베테랑들이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들이 해줘야 다른 선수들도 따라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올 시즌 페넌트레이스 선두를 공고히 한 KT의 힘은 '조화'에 있었다. 강백호(22), 배정대(26) 같은 젊은 선수들이 기량을 만개하는 가운데 유한준(40), 박경수(37)로 이어지는 베테랑들이 제 몫을 해내며 팀을 이끌었다.

이 감독이 베테랑들에게 선봉에 서줄 것을 부탁한 이유는 또 있다. 선두 도약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때와 이후 수차례의 위기 극복과정 등에서 늘 베테랑들이 큰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올 시즌 KT는 6월에 가장 높은 월간 승률을 작성했다. 16승7패로 0.696의 승률을 기록했는데, 이 당시 유한준은 0.433의 맹타를 휘두르며 타선의 기둥 역할을 했다. 박경수도 3일 인천 SSG 랜더스전(8-6 승) 결승타, 5일 수원 NC 다이노스전(4-4 무) 9회말 동점타 등으로 잇달아 팀을 구했다.

압도적 전력을 자랑하는 팀이라고 해도 시즌 내내 고공행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흔들리는 시기에 '누가 얼마나 더 위기를 잘 관리하느냐'가 강팀의 필수조건 중 하나다. 지금의 KT에는 또 한번 소방수가 절실하다. 노련미를 앞세운 베테랑들이 막힌 혈을 뚫어줄 때다. 14일 유한준은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이 감독의 절절한 기대에 응답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꼿꼿하게 선두를 독주해온 KT가 10월 들어 흔들리고 있다. 삼성과 LG의 협공으로 선두 수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위기감을 느낀 이강철 감독은 베테랑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스포츠동아DB

한현희 내일 삼성전 출격 확정

홍원기 감독 "DH 제2경기 80구 정도 예상"

키움 히어로즈 한현희(28)가 1군에 복귀한다.

키움 한현희

키움 홍원기 감독은 14일 고척 NC 다이노스전에 앞서 "한현희를 16일 삼성 라이온즈와 더블헤더 제2경기의 선발투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현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KBO와 키움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BO는 36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고, 키움은 15경기 출장정지를 추가했다.

한현희와 함께 KBO의 징계를 받은 안우진은 이미 1군에 복귀해 선발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키움은 내부논의 끝에 한현희도 올해 1군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현희는 현재 일정상 15일 대구 삼성전부터 1군 등판이 가능하다.

홍 감독은 "투구수는 8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특별히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는 받지 않았다. 2군에서 실전투구를 했지만, 제구와 구속에선 아직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구 최고 구속은 142km까지 나온다고 한다. 한현희는 몸 상태가 좋을 때 직구 구속이 145km 이상까지 나오는 선수다. 구속은 조금 낮지만, 제구에 큰 문제가 없어 선발등판 일자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키움은 15일부터 17일까지 더블헤더를 포함해 삼성과 원정 4연전을 치른다. 한현희는 14일부터 선수단과 동행한다. 징계 이전까지 올 시즌 14경기에서 5승2패, 평균자책점(ERA) 3.79를 기록했다.

고척 | 장은상 기자

3번 이정후가 끌고, 4번 박병호가 밀고…드디어 맞물려 돌아가는 중심타선 톱니바퀴

〈키움〉

컨디션 좋은 이정후 변함없이 맹타
슬럼프 빠졌던 박병호 타격감 회복
최근 10경기서 타율 0.351·9타점

중심타선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간다.

치열한 5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가 시즌 막판 공격력에서 호재를 만났다. 시즌 내내 엇박자를 보였던 중심타선이 마침내 하모니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키움은 올 시즌을 앞두고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라는 핵심전력을 잃었다. 견실한 수비는 물론 일발장타를 갖춘 공격에서도 김하성의 팀 기여도는 높았다. 키움으로선 큰 전력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도 키움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이정후(23), 중심타선의 터줏대감 박병호(35)를 앞세워 다시 한번 정상을 꿈꿨다. 키움 홍원기 감독은 최상의 공격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정후를 3번, 박병호를 4번에 배치해 상대 투수진을 압박했다.

3번타자 이정후(왼쪽)-4번타자 박병호의 조합이 맞아들기 시작하자 치열한 5위 경쟁을 치르고 있는 키움에 활기가 돌고 있다. 슬럼프에서 벗어난 박병호의 최근 맹타가 팀의 오랜 갈증을 씻어주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이정후는 3번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인 반면 박병호는 기복 있는 타격으로 슬럼프에 빠졌다. 자연스레 팀 공격의 효율성은 떨어졌다.

시즌 내내 고민거리였던 중심타선의 조합이 다행스럽게도 시즌 막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타격왕을 노릴 정도로 컨디션이 좋은 이정후는 3번에서 줄기차게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박병호가 타율을 끌어올리며 분전 중이다.

박병호는 14일까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351을 기록했다. 9타점을 올리며 클러치 능력까지 과시했다. 3번과 4번의 맹타가 거듭된 덕분에 팀도 승리를 쌓아가고 있다. 12~14일에는 안방에서 5위 경쟁 상대인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다.

이정후와 박병호의 시너지가 지속된다면 키움은 가을야구에 진출하고 나서도 가공할 중심타선을 뽐낼 수 있다. 두 중심타자의 활발한 타격감이 오래 유지된다면 키움은 무서운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고척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